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종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0호【국제 제25333호】주제105(2016)년 7월 8일(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급수상태양

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통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이시며 민족의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 차넘치는 주제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경건하고 승열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

있는 훈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휘상광역에는 당
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

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로 농적위군령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
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
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술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빅토산대국의 영상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
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지상에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과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지상에

외국의 단체, 인사들과 중국 항일혁명렬사
장율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며 왔다

만수대언덕에 놀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7일 주조 유엔개발계획, 세계식량계획, 세계보전기구, 유엔아동기금,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유엔인구기금 대표부 성원들과 공화국영웅 안동수옹과 족인 정일심동포가 꽃바구니들을 전정하였다.

그들은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푸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으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여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

들을 친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꽃바구니들의 땅 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
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 할것이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 있었다.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스위스 조선위원회와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회사장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 나이제리아 조선 친선힘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루, 중국 항일혁명련사 장율화 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7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 각하는 진보적인류의 심장 속에 영생 하실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 각하께서는 영생 하실것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써여져 있었다.

본사기자

정녕 백두산은 우리 수령님의 백두산입니다. 김정일

백두산!
이 나라 천만 산줄기와 지맥을
한눈에 뛰어 넘고 청풍높이 솟아있는
조종의 산 백두산!

아득한 태고의 지질시대에 끝없이 용
암의 불출파 힘에 이 나라 세일봉으로
솟아올라 민족은 얼마나 많은 피 눈물을
겨운 날 백두산에 파여 언제부터 선군
으로 승리하는 조선의 영광한 역사들
은 세상에 소리들이 전하게 되었거나.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오르서여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알길을
환히 밝혀주시면 위대한 김일성통지
의 거룩하신 모습이 강성조선의
찬란한 출발을 축복하며 천민의
심장을 뜨겁게 격동시킨다.

위대한 백두산 김대장의 거룩한
발자취에 떠올라 그 숭엄함과
장엄함이 하늘 끝에 달아 떨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백두산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 통지께서 항일정의 흥성을
높이 울려신 그때부터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웅적 봉파종과 존엄높은
삶의 좌표로, 강성조선의 승리한 상경
으로 그 이름 높이 떨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이 만민동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회색의 천출위인
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하여 백두산은
세월의 언덕이며 오늘도 김일성同志,
김정일同志의 성신, 위대한 김일성통지
의 산으로 한껏 떨어졌다.

진정 자거의 전정한 주민을 기다려
해고의 정직속에 묻혀있던 백두산이
살도체적을 치우쳐서 산정에 오르신
항일빨찌산 김대장에 맞이하던 그냥
처임 유헤의 7월 대단히 번개를 치
고 우뚝을 울리며 위대한 수령님의
영성을 세상에 선언하는 듯싶다.

위대한 빙도자 김정일 통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사하시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 것
들어있고 우리 혁명의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입니다.』

백두산은 이 나라 수난의 역사가
어떻게 광명파 번영의 역사로 바뀌
있는가를 세상에 소리쳐 전하는 목

위대한 수령님은 오늘도 백두산에 계신다

격자, 즐견자이다.

오랜 세월 강도 일제의 학정아래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은 피 눈물을
悴비며 살길을 찾아 해매였던가.

지난날 배운간 들에도 봄은 오는 가고
웨치던 막부시인의 피터는 철규와 5천

민족수에 민족을 이끌어 줄 위인은 없
는가하고 헌신하신 혁사의 유민을 애절히
새기기만 해야 했고 혁명들에 이어 독

립군들이 기습을 치며 화승대를 뛰어버

리면 철길을 모습을 가감아프게 지켜보
아이만 했던 이 나라 조종의 산.

민족수년의 역사로 목록히 감수해
아 했던 때 백두산은 자기의 전정한
주인을 맞이한 때로부터 혁사의 흐

름을 주도하는 민족의 성산, 혁명의
성으로 빛을 뿐리게 되었다.

때 두밀원에서 조선인 혁명군을
향강하시고 국군도 병도로 지원도 다
되었던 때 백두산은 당시에 맷구에
진전한 한 주민을 물어 죽여온 백두산지구의

민족의 한을 물어주신 구내주이시였다.

조국 해방의 대사변이 오면 일제에
죽임에 걸려온 미당으로 전민을

죽여온 백두산에 대한 수령님 따라 온
민족이 백두산으로 오르는 과정이
라고도 할 수 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진정한 조선민족의 조종의
산, 혁명의 성으로 그 이름 자랑높
이 될수록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시찰
을 드리게 되었으며 회고록『제기
 및 다툴암』에 이렇게 쓰였다.

『백사의 흐름과 더불어 백두산

의 삼장적 의미는 풍부해졌다.

실제에 있어서 백두산은 이미

30년대 후반기에서 자기의 고유한
상징적 의미의 새 의미를 끄기

시작하였다.

시화산이던 백두산에서 분출한
『광복혁명』의 물암은 2천만동포

의 주목을 끌었다.』

아버지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백두산은 일제를 때려부시는
항일의 총성으로 하여 수천년의
찰에서 깨여 날수 있었고 그때부터
조국해방의 활화산, 혁명의 성산으로
높이 솟아 천연히 빛을 뿐리게 되었다.

조선사람의 존엄을 건드리는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는다!

혁명의 총대에 민족의 분노와 원한
을 재워 일제를 살펴해 놓히신
항일의 전성적영을 김일성동지!

준엄한 항일 혁명의 길을 파악해
체리시며 밤길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
100만대 군을 허물려진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천주에 맷구에
민족의 한을 물어주신 구내주이시였다.

조국 해방의 밤의 력은 이 력 계
백두산에서 밟아왔고 항일 혁명의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님 따라 온
민족이 백두산으로 오르는 과정이
라고도 할 수 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국 해방의 밤의 력은 이 력 계
백두산에서 밟아왔고 항일 혁명의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님 따라 온
민족이 백두산으로 오르는 과정이
라고도 할 수 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통지를 높이
모시며 자거의 위대한 용자와 같이,
자기의 장엄한 용광과 같이 조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민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인민의 행복위해 바쳐오신 수령님의 그 업적 천만년 전해가렵니다



수령님 뜻 잊어 잠 못 드는 수도의 밤

깊어가는 수도의 밤, 불빛은
창가마다 두는 이야기 도란도
란 7월의 이 밤을 윤리하는.
어버이수령님은 꿈 온 나라
아이들의 천아버지 같으셨지.
길가에서 아이들을 만나시면
최우들을 했는가부터 물으시고
방파도 허물없이 열어 보시
있지.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참으로

한 원신의 이야기 어찌 다 토로

할 수 있으랴.

천만년세월이 초본다 한들

그 하찮은 이야기 어찌 한토막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웅용하는

사상, 수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달이 잘 천민군민의 명세가 불

리는 평양의 밤, 조선의 밤!

수령과 일민이 빛은 혼연

일체가 더욱 뜨겁고 억새여자

는 불빛의 밤, 7월의 밤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 총 성

그이께서 사랑의 정성, 무한

으로운 불빛이 범무리처럼 반

짝이는 인민의 보금자리, 거기

혹르는 불빛이 범무리처럼 반</

애국애족의 사상과 령도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만년로대를 마련해주신 불세출의 위인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나는 애국현신의 위대한 한생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의 대하가 드겁게 금이치는 이 땅에 7월이 왔다. 세월은 흐르고 산천도 변하였다. 하지만 우리 거레는 한평생 불편불휴의 고로와 심혈을 더 바치시여 나라의 통일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쌓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천년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워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고로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으며 민족의 숨 맴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였다.』

아버지이수령님의 거룩한 한생은 조국과 거레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불같은 헌신으로 수놓아온에 국애족의 위대한 한생이다.

얼마나 10대의 어려신 나이에 수난당한 인민의 운명을 한눈에 지나시고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성스러운 위업을 계획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 간고한 항일의 험정만리를 헤쳐서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건만 사랑하는 조국과는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졌다.

그때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 까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밤을 지새우고 침한 길을 걸으심에 온갖 고로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현지도의 깊은 밤 청성을 깨는 소리새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조국통일문제를 놓고 심려를 거듭하시고 떠도는 비구용장을 보시고도 큰물파례를 입고 한

지에서 땀고 있음 남녘동포들생각에 잠

듯 이루신 수령님이시였다.

경년 조국통일운동사의 그 어느 갈피를 번져보아도 나파의 통일을 위해 바쳐

신 우리 수령님의 고귀한 애국현신의

고로와 눈물롭게 인계운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어느날 밤

역사적인 조선로 동당 제2차대표자회에

서 하실 보고를 친필하고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에서는 한 일군의 방을 몸소 찾으

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발급밀에

작동을 물리치며 힘찬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백사적인 4월남북현석회의의 대불어

통일위업의 초행길에 빛나는 민족단합의

귀중한 전통도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인사로 아버이 수령님의 눈을 끌어운 고귀

한 열매이니며 분별주의자들의 『두개조

선』 조작동이 물거울로 되고 북남사

이에 대화와 협상의 풍파구가 열린것도

우리 수령님의 험난한 통일의지의 결

정이며 조국통일운동이 저축직위에

로 확대되고 북파 남 해외의 런데란합

이 적극 실현될수 있었던 것도 수령님의

부활한 민족단합의 사상과 평도가 안이

온 자랑한 절이었다.

그 때 위대한 손길이 있어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전민족대 단결 10대 강령, 고려민

주연평화공국 창립방안과 같은 불멸의

조국통일대도 마련될수 있었던 것은 아

니겠는가.

한생에 오로지 조국과 거레를 위한

헌신의 자욱을 이어가시며 조국통일

위업실현의 문론한 토대를 쌓아올리신

아버지이수령님이시야말로 영원한 우리

민족의 령도 양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

이시다.

서울의 한 통일인사도 모임문

에 둘로들의 실정을 담아 이렇게

기록하였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서

세기고 있으면 그

그럴수록 그들

의 미 윤은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제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말

리고 달리고 있다.

남조선의 어느 한 단체 회장은 글 『태양의 꿩-하늘궁전』을 우러러 『태양의 꿩-하늘궁전』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태양의 꿩-하늘궁전』에

로의 진이 아달로 우리 민족이

자신을 알고 민족을 알며 행수

를 이는 재달을 것이다.

『민족의 명수께서 계시는

태양의 꿩을 순례하자,』 이는

이 꿩의 민심이고 상장의 힘이다.

『우리 민족의 대회가 되

며 태양의 성지로 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태양상에는 민인들이 많

고 온갖 장벽과 차단봉을 부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님은

은 힘과 용기의 원천이시였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시였다.

세상을 향해 환하게 웃으시는

자애로운 영상, 해빛 같은 미소

를 보내시는 그분들의 영상을

분명 태양의 모습이다.

우리 남비네친구는 김일성주석님

과 김정일령도자님께서 태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

을 품어내고 계시였다.

『태양의 꿩-하늘궁전』에

로의 진이 아달로 우리 민족이

자신을 알고 민족을 알며 행수

를 이는 재달을 것이다.

『민족의 명수께서 계시는

태양의 꿩을 순례하자,』 이는

이 꿩의 민심이고 상장의 힘이다.

『우리 민족의 대회가 되

며 태양의 성지로 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태양상에는 민인들이 많

고 온갖 장벽과 차단봉을 부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님은

은 힘과 용기의 원천이시였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시였다.

세상을 향해 환하게 웃으시는

자애로운 영상, 해빛 같은 미소

를 보내시는 그분들의 영상을

분명 태양의 모습이다.

우리 남비네친구는 그분께서

정시하신 주제사상으로 민족체

생의 꿩 명을 밟아 이 앙고하고

그분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대회

으로 조직해방대 신속기동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담도들을 전면적으로 펼쳐놓았던 담도를 어려웠다.

정명 동서고금 그 어느 역사

의 갈피에도 주제사상과 같이 생

의 미지막자유까지 조국과 민족

을 위해 새긴 위인은 없었다.

김 일 생 주 석 님 은 사 상 과

정치 실력, 고에 한 인물과

이 님 속에 주제사상으로 민족체

생의 꿩 명을 밟아 이 앙고하고

그분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대회

으로 조직해방대 신속기동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담도들을 전면적으로 펼쳐놓았던 담도를 어려웠다.

정명 동서고금 그 어느 역사

의 갈피에도 주제사상과 같이 생

의 미지막자유까지 조국과 민족

을 위해 새긴 위인은 없었다.

김 일 생 주 석 님 은 사 상 과

정치 실력, 고에 한 인물과

이 님 속에 주제사상으로 민족체

생의 꿩 명을 밟아 이 앙고하고

그분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대회

으로 조직해방대 신속기동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담도들을 전면적으로 펼쳐놓았던 담도를 어려웠다.

정명 동서고금 그 어느 역사

의 갈피에도 주제사상과 같이 생

의 미지막자유까지 조국과 민족

을 위해 새긴 위인은 없었다.

김 일 생 주 석 님 은 사 상 과

정치 실력, 고에 한 인물과

이 님 속에 주제사상으로 민족체

생의 꿩 명을 밟아 이 앙고하고

그분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대회

으로 조직해방대 신속기동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담도들을 전면적으로 펼쳐놓았던 담도를 어려웠다.

정명 동서고금 그 어느 역사

의 갈피에도 주제사상과 같이 생

의 미지막자유까지 조국과 민족

을 위해 새긴 위인은 없었다.

김 일 생 주 석 님 은 사 상 과

정치 실력, 고에 한 인물과

이 님 속에 주제사상으로 민족체

생의 꿩 명을 밟아 이 앙고하고

그분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대회

으로 조직해방대 신속기동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담도들을 전면적으로 펼쳐놓았던 담도를 어려웠다.

정명 동서고금 그 어느 역사

의 갈피에도 주제사상과 같이 생

의 미지막자유까지 조국과 민족

을 위해 새긴 위인은 없었다.

김 일 생 주 석 님 은 사 상 과

</div

